

開 會 辭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어떻게 進行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 20년 전에 제가 번역했던 美國의 유명한 法學者이며 위대한 法官이었던 벤자민·카도조선생의 「法の 成長」을 한두장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 그가 이미 오래전에 法, 그리고 法學의 密接한 關係에 대해 그 속에서 明白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읽으며 감명이 깊었습니다. 「法은 마치 旅行하는 나그네처럼 하루종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旅行하다가 저녁에 해가 저서 주막에 들었는데, 그 주막은 나그네의 終末이 결코 아니다. 來日의 새로운 旅行을 위한 休憩이고 準備다.」 그렇게 法을 나그네에 比喩해서 그 분이 밝혔습니다.

解放後 우리나라는 한 30년동안 法을 運用하는 사람들, 法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活動해 왔고 수고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法·法學이 지금 오늘 이 時點에 어디에 와 있느냐, 오늘 과연 法學은 이 法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해야할 課業이 무엇이나라는 이러한 命題아래 우리 法學研究所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심포지움을 그 동안 組織했고 準備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이 심포지움을 組織·準備할 수 있게끔 物心兩面으로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서울大學校 總長님께 심심 感謝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심포지움을 더욱 빛나게 해 주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招請講演을 맡으셔서 와 주신 美國 Michigan大學校의 W. Gray 教授, 日本 東京大學校의 Ito Masami 教授, 西獨 Mainz大學校의 W. Rudolf 教授 이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심포지움에 特別講演을 맡아 주신 田鳳德 博士님, 黃山德 博士님, 그리고 일곱개의 分科에 司會·發表 등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또한 마음깊이 感謝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全國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歷史上 우리 法曹界·法學界에서, 法院·檢察·法科大學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全國적으로 끌고루 모여서 이런 學術的인 모임을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 심포지움이 形式的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알차게 우리들에게 얻는 것이, 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主權를 맡은 研究所 所長 이 사람의 祈願입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78年 3月 17日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金 致 善